각계 인사와 남북평화·화합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당선 후 잇단 예방서



도종환 "北 신계사 템플스테이"

원행 스님은 10월 11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 예방서 "신계사를 복원한지 11주년이 됐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여건이 된다면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스님과 신도,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마련되길 바란다. 1박이든 2박이든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당장은 신계사에 템플스테이를 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종단과 문체부가 함께해 방사를 잘 지어 남북평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장관은 "신계사 복원 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최근 상태가 어떤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정부, 사회 등 각계가 협심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KTX여승무원 "복직 축하"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도움으로 12년여 만에 복직이 확정된 KTX 해고승무원들은 8일 원행 스님을 예방해 직무교육에 들어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승하 열차승무지부장은 "오랫동안 투쟁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잊히며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그때마다 조계종 스님들이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오체투지 등 불교적인 방법으로 힘이 돼 줬다"며 "서울역 농성 때 매일 같이 108배를 했는데 그 기도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아직 남은 과제에도 불교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전 원장스님들이 잘해주셔서 종단이 칭찬을 받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백운 스님 "태고종 갈등 해소"

원행 스님은 10월 8일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화합'을 강조했다.

편백운 스님은 먼저 "원행 스님이 36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되고 주변이 안정돼 기뻤다"고 인사를 건넨 뒤 "선암사 문제로 조계종과 태고종 서로 어려움에 처했다. 더 이상 분쟁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상호 노력해 해법을 찾자. 종단을 위해, 종단협의회를 위해 태고종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편백운 스님은 조계종이 교육기관이 없는 타 종단을 배려해 중앙승가대를 개방해줄 것과 태고종 출신 승려도 조계종서 일정 자격을 갖춘다면 군승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행 스님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청와대 수석 "정부와 소통 강화"

10일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의 예방서 원행 스님은 청와대와의 원활한 소통을 다짐했다.

원행 스님은 "누구보다 가까이서 한국불교와 종단에 관심과 신경을 기울여줄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며 "조계종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해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8일 신임 청와대불자회장으로 내정된 윤 수석은 개인적으로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총무원장 스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린다. 청불회도 종단을 위해 어떤 일을 도와야할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서도 남북평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종단차원서 원활한 대북교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첫 청년신행축제 "함께 딛고 일어서자"

10월 6일 김제동 토크콘서트
각종 체험에 500여 명 참여

"길을 가다 빙판에서 넘어졌을 때 이목을 끌게 일으켜 세워 주는 사람이 고마울까요? 옆에서 같이 넘어진 사람이 고마울까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청춘들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들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아닐까요?"

10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는 방송인 김제동 씨와 함께하는 청춘콘서트 '사람이 사람에게' 가 열렸다. 유명 방송인 답게 재치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공연장을 가득 메운 대중들은 때론 웃고, 때론 진지한 모습으로 시대의 아픔을 공유했다.

이날 청춘콘서트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을 비롯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청년신행축제의 메인행사였다.

김제동 씨는 "유머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집을 때 나온다. 일종의 혁명이다"



행사는 기상악화로 실내에서 진행됐지만 많은 이들이 마음상담코너를 비롯해 불교문화체험을 즐겼다. 사진은 청년들이 레고붓다를 만드는 모습.

며 "평등한 세상이란 것은 부자를 끌어내리고, 기업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받던 가난한자, 노동자들의 가치를 끌어 올리는 것이다. 양자를 비교하는 프레임에서 한쪽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대로 그것 또한 가치가 있고 이를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말했다.

김제동 씨는 이어 "영어 등 스펙 압박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해줄수 있는 말은 굳이 영어를 못한다고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장점을 발휘하면 충분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먼저 기죽을 필요가 없다. 못하는 것 또한 못하는 것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행사는 태풍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당초 예정보다 늦은 1시부터 실내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레고붓다 만들기, VR사찰체험 등 불교문화체험을 즐겼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 등 불자들을 비롯해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여했다.

조계사에서 온 우준태 씨는 "보통 사찰 내에서 청년들이 머문다면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불자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 청년으로서 미래의 삶에 대해 용기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희동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다. 자연스럽게 개인의 신심도 북돋을 수 있는 이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도 "중앙뿐만 아니라 각 사찰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함께 소통하고 굳이 법회 등이 아니더라도 불법을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청년UCC공모전에는 대상에 윤유진, 최우수에 양영재, 유인수, 김문섭 씨가 당선됐다.

노덕현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풀잎 양심과 황금 목걸이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설법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짜 바라문이 살고 있었다. 한 장자가 자기의 숲에 초막을 짓고 그 바라문을 살게 하고 날마다 음식 공양을 했다.

가짜 바라문을 믿은 장자는 황금 목걸이 백 개를 초막 옆에 묻고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출가자자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바라문은 이틀 후 그 금을 훔쳐 다른 장소로 옮겼다. 그는 장자에게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집착이 생기므로 이곳을 떠나겠다"고 했다. 숲을 떠난 바라문은 잠시 후 되돌아왔다. "장자님, 당신 지붕에서 풀잎 하나가 내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질 수 없어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라문이 다시 떠난 후 장자 집에 묵게 된 상인이 물었다. "그 바라문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장자와 상인은 금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바라문을 뒤따라가 그 보물을 도로 찾았다.

"백 개의 금 목걸이를 훔칠 때에는 양심의 가책이 없고 풀잎 하나에 양심이 있었구나." 상인은 바라문을 훈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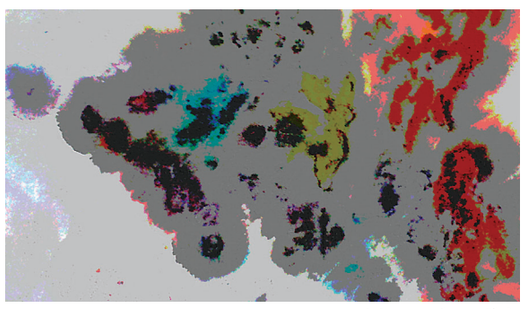
부처님은 "전생의 가짜 바라문은 지금 저 바라문이고, 현명한 상인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양심을 속이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양심을 두 번 속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양심은 올바른 윤리도덕의 길을 제시해주는 거울입니다. 양심이 맑고 깊을 때는 옳고 착합니다. 양심이 번뇌에 덮이면 악이 나옵니다.

*금강경 사구게 중에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즉견여래(卽見如來)'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산승은 이 가르침을 '모든 것은 허망하지만 결코 허망하지 않은 것이 있다' 는 뜻으로 봅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양심 그림 · 조향숙

마음의 바탕 '불성=양심'
깨어난 양심 나눔에 익숙
사회복지 · 이상세계 구현

생각이 들락날락하는 '마음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 바탕을 흔히 불성(佛性)이라고 하는데 산승은 그것을 '양심' 이라고 명명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다가 뼈저린 실패를 맛 봤을 때, 공들여 쌓아올린 것이 허망하게 무너졌을 때 뉘우쳐 참회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나의 존재가 덧없음을 알게 될 때, 향락의 허무를 느꼈을 때 그 사무치는 마음에서 톡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허망함을 통해서 허망하지 않은 양심의 자리를 발견합니다.

양심이 깨어나면 나눔에 익숙해집니다. 나눔 즉 보시는 대승불교의 첫 수행덕목으로 보살도 실천이며 중생복지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고 있으므로 내 양심이 사회로 확산되는 그 자리가 사회복지이고 이고득락입니다. 중생 속에 잠든 불성을 일깨워 '깨어있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이 많아질 때 우리는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나아가 부처되는 이상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창간 현대불교신문 24주년을 축하합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 회 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원 장 덕민 부주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현학
재 무 성심 포 교 성요
호 법 성담 사 서 정빈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불국사 템플스테이 ☎ 054)746-0983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성림 어린이집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 유치원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진현동)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